

출산·입양 및 혼인세액공제의 재정사업 전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6.8.4. 머니투데이는 「결혼 축의금’ 국가가 100만원 준다...출산도 세액 공제 대신 재정지원」 기사에서,
- “정부가 출산·입양 및 혼인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- 출산·입양 및 혼인세액공제를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국민복지예산과	책임자	과 장	진민규 (044-214-2910)
		담당자	사무관	김진수 (kimjinsu@korea.kr)